

社 說

정교초등학교 歩道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 549번지 위치인 정교초등학교 학생들은 현재 180여명이다. 숫자가 많지 않아서인지 모르지만 정교초등학교 통학로에는 스톱존이 없다. 도로가에 보도도 없다. 게다가 대형차량들이 교행할 수 있는 도로폭도 아니다. 도로폭이 5m에 불과하다. 차량교행시 학생들이 위협당하고 있다.

세로 정교초등학교 학생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학교부지를 추가로 내놓지 않을 경우, 현재 설계도면상으로는 보도를 설치할 경우 폭이 1.5m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교통사고 위험에 예상되고 있다. 특이 이 도로가 완공되면 폭 8m 왕복 2차선으로 차량통행이 이전의 폭 5m에서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인명사고를 불러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얼마전에도 정문앞 슈퍼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큰 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 정문에서 나온 1학년 어린이가 차를 향해 달리는 것을 할머니가 재빨리 뛰어가 제지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좁은 길 위를 마구잡이로 달리는 차량들은 인근 공장밀집지역 공장을 왕래하는 차량들이다.

게다가 이곳은 스쿨존 지정도 안돼 있다. 관할 교육청과 학교와 포천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는 대목이다. 학교 앞에 횡단보도도 설치돼 있지 않다. 모든 학부모나 교사, 학생들은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법을 준수할 것을 교육해야 할 학교 앞 도로는 법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기를 포기하고 있다.

이 도로는 이름하여 군도 2호선이다. 이 군도 2호선을 올 연말까지 폭 8m로 확장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침 등교시간에 학부모들이 나와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지도하지만 학부모들이 서 있을 곳도 마땅하지 않다. 보도도 따로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행하는 차량들은 대형차량이 많아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포천시가 확장공사 설계당시 학교부지 2m를 매입하면서 도로 설계에는 보도설치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학생들의 통학로를 설계하지 않는 어찌 구니답이 발생한 것이다.

가산면 정교리 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가산면 출신 포천시의회 의원과 경기도의회의원, 포천시장, 포천교육장 등 모든 기관단체에서 나서서 정교초등학교 주변을 둘러보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비좁은 길 위를 마구잡이로 달리는 차량들은 인근 공장밀집지역 공장을 왕래하는 차량들이다.

이같은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도로가 확장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후나 처리하려고 하는 안이한 태도는 버려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돼야 할 이유는 그들이 다음세대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설계가 96년도에 이뤄졌는데 당시는 보도 설계를 하지 않는 게 통상적인 관행이었다고 한다. 믿어 야 될 말인지 이해가 안된다.

자녀들이 학교를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게 된다. 정교초등학교와 포천교육청이 포천시에 보도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자 포천시는 학교부지 2m를 더 내줄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정치활동 동향

- 이철우 국회의원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년도 결산승인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 기획예산처의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고 국회의 시정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박윤국 포천시장은** 14일 포천시의회 의원 및 관내 기업인들과 출국해 인도 뉴델리, 첸나이, 방글라데시 데카를 방문해 지역 공산품 등을 수출하기위해 관계자들과 외교활동을 펼쳤다.
- 최대중 포천시의회회장은** 11일 제15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리셉션 및 개막식에 참석해 각 지역 단체장 및 의회의원들을 격려하고, 각 지역 임원 및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박경희 포천시의회부의장은** 14일 시장 및 의회의원들과 동행해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의 수출 증대와 지자체간 결연을 위해 인도로 출국했으며, 오는 23일 귀국 할 예정이다.
- 오병익 경기도의회경제투자지원장원은** 16일 WTA투자협약(MOU:양해각서) 조인식에 참석해 자리를 함께 하고 나노랩센터 이사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 이상만 경기도의회회원은** 15일 가산초등학교에서 개최된 가을 대운동회에 참석해 관내 각 학교 교장들과 학교현안 및 발전방향 등에 관해 논의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는 시간을 갖었다.
- 이천목 포천시의회회원은** 12일 자작동 주민화합 한마당 체육대회에 참여해 부녀회, 청년회, 왕방공단 임직원 등 주민 200여명과 함께 자리하고 주민화합을 위해 애써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치하했다.
- 김영대 포천시의회회원은** 14일 내촌면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2005년도 주민속원사업에 대해 개발위원 및 박찬영 면장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개발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더불어 지역현안에 대해 심의의결을 했다.
- 김영오 포천시의회회원은** 15일 포천예총에서 임원 6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악협회간 부회의를 갖고 11월 21일 개최되는 국악공연과 관련해 문제점 및 현안에 관해 토의하고 국악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公教育發展과 앞서 가는 생각’

의식개혁협의회 국민대토론회

17일 의정부 북부교육관에서 500여명 참석



정동화 의식개혁협의회장이 국민대토론회에 앞서 발제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의식개혁협의회(회장 정동화)가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이 후원해 마련한 제10회 의식개혁국민대토론회가 ‘公教育發展과 앞서 가는 생각’이라는 주제로 17일 오후 1시부터 북부교육관에서 500여명의 교육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재경포천시민회장이 의식개혁협의회 정동화 회장의 개회사와 발제, 토론순으로 진행된 이날 국민대토론회에서 정동화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교육이 시대에 부응하고 사회 선도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교육주체자의 성찰과 아울러 의식이 변해야 한다”며 “의식은 행동의 견인차로 행동 변화의 동력이 되기 때문이며 그것이 전문성 제고와 지도자적 자질함양으

로 이어질때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교육 도약의 방안제시는 결코 한 두 사람의 연구로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니고 유관인 사들의 장기간 공약수를 찾는 논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오늘 함께 토의하는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진 발제에는 한림대 정범모 석좌교수가 국력·국격과 교육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한국교육의 지상과제는 한국의 국력에 국격 고양이라는 역사적 숙원을 하루 빨리 성취하는 일”이라며 “그것은 곧 전인교육과 자유민주주의 교육이 한국의 교육이념이어야 함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 이념을 추구하는 교육

을 현실화하려면, 우선 사회기관 전반의 인사선발에서 전인평가가 관례화 되어야 하고, 정부는 교사와 학교의 자율성을 폭넓게 과감하게 허용해야 하며, 교사는 그의 장인성을 유지, 고양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연후에 한국교육은 그 대도(大道)를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은 학교혁신을 위한 구조적 접근모형이라는 발제를 통해 “참다운 성취를 위한 학교의 전문적공동체 형성 추진이 중요하며 단위학교의 새로운 학교운영체제로서 혁신의 본질적 기능은 지식 기반사회에 적합한 참된 학습성취를 이루는 것이며 이를 얻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지성 개발, 탐구 능력 개발, 실생활에 유용한 학업성취 등을 돕는 교사들의 적극적인 교수행위 즉 참된 교수(authentic pedagogy)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토론과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등을 통해 일본과 중국이 역사를 왜곡하는 현실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의식개혁협의회는 지난 98년 2월9일 창립되어 제10회 걸친 국민대토론회를 주도해 왔으며 40차례의 월례발표회를 통해 지식사회의 리더로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는 단체로 알려져 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제1차 정기회의

“주부명예기자는 인터넷 포천신문부터 출발하자” 다짐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단장 김기호)이 16일 오전10시30분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정기회의를 갖고 ▶발대식 회의를 갖고 ▶기자작성 및 책보의 건▶기타토의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제1차 정기회의가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16일 개최됐다.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정기회의에서 포천신문 최호열 발행인은 “덕망있고 신망있는 주부명예기자단 여러분들이 포천시가 밝고 투명한 사회로 발전하는데 이력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하고 “유료독자 1만명 시대를 열고 생활한 뉴스를 보도하는 신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기호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장은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로서 성장하는데 첫걸음은 포천신문 인터넷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임을 강조하고 “정론지 포천신문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제보는 물론 독자확보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은경씨 등 5명에 대한 신입 주부명예기자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기타토의에서는 지역별 연락망 유지와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자교육을 통해 포천신문 김영복 편집국장은 “포천신문이 지난 4년동안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신문에 대한 열정과 포천사회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주부명예기자단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아이들을 개발하여 포천신문과 더불어 사회봉사에 적극 나서줄 것”과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 역할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8월11일 발대식을 갖고 출범한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은 현재 5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의 크고작은 소식을 제보 및 보도하고 있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이 예상되고 있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 지방자치 우수 행정서비스 “大賞” 수상

KID 포천시 시정개혁과 자치경영 성과 높이 평가



이정열 포천시부시장이 KID가 선정한 전국 지방자치우수행정서비스대상상을 수상해 기뻐하고 있다.

포천시가 제24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원장 백영훈)과 한국질서경제학회(회장 조희영)가 공동으로 선정, 시상하는 “전국 지방자치 우수 행정서비스 대상”을 단독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재)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은, 민

정서비스 대상”을 시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KID는 전국 234개 시·군·구의 시정계획서를 수집한 뒤, 서면평가를 통해 8개 시군을 1차 선별했으며, 교수와 학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이 8개 시군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와 현지 실사를 벌인 끝에 포천시를 최종

수상 자치단체로 확정했다. 포천시는 이에 앞서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전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경쟁력 조사에서도 군 단위 경쟁성과부문 4위에 오른 바 있다. 포천시는 민선3기 출범과 함께 특히 민원서비스 혁신과 행정정보화 기반구축, 주민정보와 교육 등을 통해, 시민을 위한 시정혁신과 시민이 함께 하는 자치정발함을 위해 힘써왔다고 밝히고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더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과 함께 열린 KID의 “지방자치 민자유치사업 투자설명회”에서 포천시는 포천시 아태밸리 조성사업과 산정호수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 설치 사업 등에 관해 발표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의 원 칼럼

40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박 경 희 포천시시의회의원

남자 나이 40이면 자기 일에 책임을 지라고 누군가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의 경우는 30대 후반에 의원출마를 나서서 처음 자신의 고배를 마신 순간 부모형제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한없는 미안함과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성원으로 다음 의원에 당선된 이후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43년 국도4 운천리를 우회하면서 중앙동과 연결시킨 일, 토지보상업무로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3년여간

정리 우물목에 팍키지 마을을 건설토록 하여 주민들이 빈민마을을 조성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으며, 약 10억원을 투입하여 영북중학교 진입로를 개설하여 학생들이 안정하게 통학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에서 관할 군부대와 협의를 위해 겪었던 어려움 등은 지역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감히 생각됩니다.

특히, 영북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주민친화시설을 설치하면서 영북면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축구장을 포함한 종합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의회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자 관련 공무원들은 다음 선거까지 업무추진을 미루는 등 보이지 않는 갈등을 겪으면서 섭섭한 마음과 함께 심지어 야속하게도 느껴졌습니다. 특히 저의 본 마음을 오해하여 조기추구위원들과 의견대립이 있었던 일은 한 때 절거운 추억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제 나름대로는 지역발전기금을 마련하여 영북면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산정호수 골프장을 상대로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받았던 오해들은 지금도 씁쓸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 기금을 이용해서 매년 영북초·중·고 졸업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불우이웃돕기, 군부대 지원, 경로당 및 체육회 지원 등을 하면서 느끼는 뿌듯한 감정은 무보수 명예직 지방의원으로서는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초선에 당선된 첫째 1997년 포천지역에서도 수해 없는 지역으로 소문난 영북면이 하루 강수량 800mm를 기록하면서 부수천 일대를 비롯해서, 자일리, 아미천, 대화산천 등이 일시에 범람하여 한밤중에 운천3·8리 주민들을 영북초등학교로 대피시키면서 긴박하게 움직였던 일은 지금도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수해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야겠다는 일념으로 부수천 제방에 옹벽을 설치토록 행정관청에 촉구하여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당대에서는 수해의 위험으로부터 운천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또한, 운천리 및 자일리 경지정리 지역에 대한 농로 및 수로를 완벽하게 정비하여 농민들이 마음껏 풍년농사를 거둘 수 있도록 한 일도 제가 의원임기중에 이룩한 자랑스러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1998년도부터 산

이제 영북면은 접경지역 개발사업과 함께 새롭게 발전할 기회를 맞이하였습니 다. 포천시내 14개 읍면중영북면에만 유일하게 2개의 국책사업이 확정되어 아미리에 약 14만평 규모로 건설될 영북산업단지과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사업이 완공되는 2014년에는 ‘더불어 사는 영북, 살기좋은 영북면’이 이루어 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후에 훗날 공직을 떠난 저에라도 지역주민들과의 멀고 가까운 인간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가 추진한 업무실적으로 평가받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변함 없으신 성원에 힘입어 일에 대한 욕심, 열정 넘치는 의욕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한 포천시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길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농업인 『농협 이동상담실』 개최



농협중앙회포천시지부가 개최한 농협이동상담실에서 농민들이 경청하고 있다.

농협중앙회포천시지부(지부장 황성택)는 최근 포천농협에서 농협이동상담실 및 고객에게 농업인 법률·세무·건강에 대한 농협

이동상담실을 실시했다. 농협 이동상담실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 보호원, 아산재단의 협조를 얻어 생활법률, 소비자 권리 및 피해 사례, 생활속의 건강문제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이번 이동상담실에 참석한 농업인들은 “농업인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고 고충 상 황성택)는 최근 포천농협에서 농협이동상담실 및 고객에게 농업인 법률·세무·건강에 대한 농협

등록번호 경기 다 5007 2000. 8. 18 등록 **포천신문** http://www.ipcs21.com

발행처: (주)한국정보 경기도 포천시 동동로 213-4 고은 B/D 1년 구독료 48,000원

사훈: 주인의식(主人意識) 정론직필(正論直筆) 문화창달(文化暢達)

편집국 (031)542-9776 발행인 겸 대표이사 최 호 열
 기사계보 (031)542-9888 편집인 구 봉 주
 광고접수 (031)542-9889 편집국 장 김 영 복
 구독신청 (031)541-9115 인 쇄 인 김 규 석
 F A X (031)541-9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주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